



2010 글로벌콤팩트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의 참가 기록

2010년 3월 26일

- I. 일 시: 2010년 3월 15~16일
- II. 장 소: Ashok 호텔 컨벤션 홀, 인도 뉴델리
- III. 행사명: Global Compact Asia Pacific Regional Conclave 2010
- IV. 참가자: 500여명 (21개국)
 - UNGC 한국협회 참가자: 주철기 사무총장, 이준석 팀장, 이은경 간사
- V. 내 용:

3월 15일

1. 개회 세션

- 환영사 (R.S. Sharma, CMD, ONGC사 and GCN India 회장)
 - 인도에서 두번째로 글로벌콤팩트 아·태 지역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처음 UNGC가 탄생했을때, CSR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UNGC에 참여하고 있음.
 - 미디어는 UNGC 활동 및 가치를 지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가장 큰 UNGC 로컬 네트워크 중 하나인 인도 네트워크가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Soren Petersen (Head, Local Networks, UNGC)
 - UNGC가 처음 시작되었을때, 40여개의 기업만 참여하고 있었는데, 몇몇 인도의 기업들도 이러한 초창기 멤버중 하나였음. UNGC의 발전에는 기업의 참여 뿐아니라, 다른 부문의 참여도 매우 중요함. 특히 경영대학의 UNGC참여도 중요함. 기업의 미래는 UNGC/CSR교육의 가치를 아는 CEO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함.



10년전에는 UNGC에 적대적인 정부도 많았지만, 현재는 매우 협조적으로 바뀌었음.

- UNGC의 4가지 이슈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관성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
- 그저 기업 차원에서 CSR을 잘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야 할 것임.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는 데에 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리는데 아직 해야할 일이 많음. 현재 7500여 회원이 UNGC에 참여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회원수를 2만개로 늘리는 것이 UNGC 본부의 목표임.

- Arun Maira (Member (Industry), Planning Commission)

- 인도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여러가지 도전도 간과할 수 없음. 최근의 설문조사 및 연구에서는 기업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하나가 인프라 시설을 위한 토지의 확보라는 결과가 나왔음. 성공적인 기업들의 경우,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동의를 잘 이끌어 내고 있음.
- 빈곤 퇴치 등 유엔의 목표를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부일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에서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이러한 것이 바로 UNGC 가치와 맞닿아 있음. 본인은 “Transforming Capitalism (자본주의의 변화)”이라는 제목을 책을 집필하였는데, 이 책에서 인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설명하고 왜 UNGC가 기업들에게 중요한지에 대해 소개하였음. 지금이야말로 대기업 뿐만아니라, 다국적 기업, 중소기업들이 UNGC에 참여해야 할 상황임.

- Shashi Tharoor (Minister of State for External Affairs, India)



- 인도는 매우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로 구성된 국가임. 아직 기업은 이윤추구만이 활동 목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고, CSR에 대한 활동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점점 기업들은 기업 주위의 사회, 사람들의 요구에 더 민감해지고 있음. 인도최대의 한 IT 기업은 1년전만해도 영국의 유력한 기관에 의해 최고의 기업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의 부패 스캔들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음.
-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 및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임. 많은 기업들이 시장이 사회로 부터 신뢰를 얻게하기 위해 노력중임
- 사회적 가치를 이익 위에 놓으라는 정신은 인도 고대의 지혜임
- 사람들을 돌보고,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통해 부패와 싸우는 것이 현재 기업들이 할 일이라고 봄.

- Salman Khurshid (Minister of State for Corporate Affairs, India)
 - 지속가능한 발전의 차원에서 UNGC 및 CSR 이슈를 보아야함. 기업의 생존과 사회의 발전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Ministry of Public Affairs에서는 작년 ‘Corporate Governance Voluntary Guideline’을 발간한 바 있는데, 규제와 기업의 자율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Udeshi Colli (Senior Advisor to UNGC)
 - GCLN팀과 ONGC팀이 협력하여 금번회의를 준비했음. 2일간에 걸친 본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UNGC 회원사 CEO들이 CSR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UNGC/CSR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내는 기회가



2. CEO 패널 토의: “어떻게 UNGC 10원칙을 기업 활동에 적용시킬 것인가?”

– Arun Maira (Member, Planning Commission)

- CSR 활동을 기업이 부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CSR이 기업의 모든 업무에 스며들어야 할 것임.

– R.S. Sharma (President, GCN India & CMD, ONGC)

- ONGC의 경우 모범을 보인다는(Lead by Example) 모토아래 UNGC 10원칙이 회사 활동 곳곳에 스며들도록 하고 있음. 내부자 고발 제도 등의 활성화,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의 발간, 모든 ONGC 개최 행사에 대한 피드백 조사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CSR 활동으로 인한 단기적인 이익도 많음. 예를 들어 ONGC와 계약을 맺는 회사들이 크게 증가하였음.

– Hemant Nerurkar (MD, Tata Steel Ltd.)

- UNGC 가입이후, TATA 그룹의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회로부터 받은 것은 사회로 돌려준다는 원칙이 TATA 그룹의 창업자로 부터 전해져왔으며, 현재에도 “Happy Employee, happy family”라는 모토를 통해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음. 철강기업으로서 탄광촌 등의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에도 신경쓰고 있음.

– Rana Som (CMD, NMDC Ltd.)

- 채굴 산업의 기업들은 특히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중요함. 최근에



는 지역사회에 모바일 폰을 배부하여, 의료 문제가 있을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당 지역에 학교 건설, 재정 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음. 국제투명성기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

- Somak Ghosh (Co-founder & Group President, Yes Bank)
 - 좋은 일을 하는 것(doing the right thing)과 일을 잘하는 것 (doing things right)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이슈가 있음. 좋은 일을 잘하고 있다면,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함. 좋은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좋은 리스트 측정 도구 등이 있다면 좋은 일을 하면서 성과도 잘 낼 수 있을 것임.
- S.P.S. Bakshi (CMD, Engineering Projects India Ltd.)
 - 반부패 이슈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우리 기업 직원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될 것임. 백만명이상의 근로자가 간접적으로 우리 기업과 관련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반부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Soren Petersen (Head, Local Networks, UNGC)
 - 최근들어 공동 대응 (collective action)과 공개(disclosure)에 세계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3. 분과 토의

1A 인권 세션

- Viraf Mehta (CEO, Partners-in-Change)
 - 인권은 UNGC 첫 번째 이슈로서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함. 현재 복잡한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지만 이는 결국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의 문제임.

- 인권통합경영을 위해 NGO, 기업, 정부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실제적인 툴(tool)을 만들어 가야함. 유엔사무총장 기업인권 특별대표 존 러기(John Ruggie) 교수와 유엔인권이사회는 기업인권에 관한 정책프레임워크를 채택함.
- 보편적인 인권선언은 많은 권리를 포함하고 있고, 회사는 이러한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는 기업시민정신, 사회에서의 기업의 역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로 설명될 것임.

- Sune Skadegaard Thorsen (Director, Global CSR)

- CSR은 기부가 아니고, 회사가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한 길임. 따라서 인권가치를 경영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권을 사회적 책임의 프레임워크로서 사용해야만 함. 코카콜라의 인도 지하수 오염과 물 부족 현상 초래, 엑손 모빌의 기름유출 같은 예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결핍에서 비롯된 것임.
- 차별 및 폭력 금지, 여성 고용 등에 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이 필요함. 또한 회사 내 인권을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세워가야 함.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옴부즈맨 같은 것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음.

- Mark Hodge (Director, Global Business Initiative on Human Rights)

- 어떻게 인권이 기업가 정신을 창출해 낼 수 있는가? 이는 전통적 인권 개념의 범주를 확장해야 가능함. 기본적 인권을 포함해 훈련과 교육의 기회 제공, 깨끗한 작업 환경, 다양한 문화 수용, 환경 관련 이슈 등 회사가 직면한 문제들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바꿀 필요가 있음.



- Sujata Lamba (Senior Manager, Global Linkages Unit, IFC)
 - 점점 많은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데,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의 국가들은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인권인식이 낮음. 이런 지역에 CSR을 확산하고 선진국의 인권 툴(tool)을 공유하고 책임있는 인권 발자국(foot print)을 남길 필요가 있음.

- Y Manohar (Director(HR), Vizag Steel)
 - 인도 사회는 점점 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시민들의 기회 평등, 법적 권리가 확산되고, 정치적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음. 기업들은 전략적 박애를 선택하고 있고, CSR 측정에 있어서도 인덱스 및 지속가능보고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호주 기업들은 여성들의 경영참여가 큰 이슈이고, EU나 미국은 차별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를 확산하고 있음. 인도 타타 그룹은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 있음.

1B 노동 세션

- U.D. Choubey (Director General, SCOPE)
 -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음.
 - 지식 근로자들의 국가간 이동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임금 책정이 중요 이슈가 되고 있음

- Gotabaya Dasanayaka (Sr. Specialist, Employer's Activities, ILO)
 - 세계화로 인해 저개발국가들에서 노동규칙에 대한 압력이 더욱 강해졌음.
 - 아동 노동 이슈의 경우, 자회사내 뿐만아니라 공급망 내에서도 아



동노동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 체계가 있어야 할 것임. UNGC 가입사가 어떻게 이 분야에 접근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임.

- Mathew Tukaki (CEO, Help Age India)
 - 근로자를 Skilled, semi skilled, unskilled로 분류할 때, 인도의 상황에서는 skilled 근로자를 영입하기가 힘든 상황임. 많은 인도의 우수한 인재들이 조건이 좋은 선진국으로 가고 있음.
 - 근로자의 능력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제의 도입이 필요함.
 - 최소 임금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3월 16일

1. 패널토의: “ 수익, 이익을 넘어선 기업 가치 구하기 (Capturing Enterprise value beyond Revenue and Profits)”
 - Arup Roy Chowdhury (Chairman, SCOPE & CMD, NBCC Ltd.)
 - 인도에서는 1991년이 큰 전환기였음. 1991년 이전에는 고용 창출, GDP 증가를 위한 기초 자원의 마련이 강조되었고,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공 부문에 종사하였음.
 - 1991년 이후에 많은 공공 부문의 영역이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기 시작하였음.
 - 공공부문이 비교적 유동성은 적지만, 인도 경제에서 공공부문의 공헌은 크다고 할 수 있음.
 - Satnam Singh (CMD, Power Finance Corporation)



- 그간 인도의 금융업계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 은행은 기업들에게 금융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려웠고, 기업들은 장기적인 액션 플랜을 세우기 힘들었음.
 - 최근 상황이 나아지면서 은행들의 금융 지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Rajdeep Sardesai (Editor-in-Chief, IBN Network)
- 이익은 방송 업계에서 관계없는 것이었음. 이해관계자에게 분기마다 보고해야하는 상황으로 변했음.
 - 인도의 방송업계에는 300개 채널이 있는데, 이 언론사들 사이의 경쟁의 본질은 공익과 이윤 창출이라는 두가지 목표에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것임. 소비자 즉 시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선 공익에 대한 고려는 방송업계에서 이미 필수적인 이슈임. 장기적으로는 이윤과 윤리가 절대 상반되지 않는다고 봄.
- Pooran Chandra Pandey (Director, Times Foundation)
- 소비자들과의 장기적인 관계가 기업의 주요 관심사임.
 - 기업의 아젠다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소비자들의 참여를 통해 논의해 나가고 있음.
- Georg Kell (Executive Director, UNGC)
- 세계는 통합되어가고 있는중. 가치는 문화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보편적인 것임. 이러한 보편성에 근거하여 UNGC가 탄생하였음.
 - 많은 기업들이 점차 장기적인 재무적인 요소와 비재무적인 요소의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골드만삭스 등의 연구자료에서는 환경 등 비재무적 이슈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회사들이 평균적으로 재무적으로도 우수하다는 결론을 보인 바 있음.
 -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떻게 이러한 통합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인가를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음.
- Bhaskar Chatterjee (Secretary,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s)
- 인도에서는 1991년 후에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하였고, 해외 컨소시엄 (민관 합작)의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 CSR을 자선이 아니라, 전략으로 봐야할 것임. 많은 중소 하청업체들이 CSR을 추진하기에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 있음. 대기업, 모회사의 역할이 중요함.

2. 분과토의

2A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 세션

- Joe Philip (President, XIME)
- 경영대학에서의 교육은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어야 함. 전세계 인구중 2억 8천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기업의 경영진으로서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가 PRME에서 있어야 함 (Business of business)
- H. Chaturvedi (Director, BIMTECH)
- CSR이 자선, 홍보의 수단이 아니라 회사의 DNA로서 모든 활동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영 교육에 있어야 함.
 - Whole food의 경우, 어느 매장에서 계산 기계의 오작동으로 소비자들 장시간 기다리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돈을 받지 않은 일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기업 이익



에 손해일 수 있지만,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쌓는데 성공한 사례임. 기업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작성시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경영 교육에서 다루어 져야 함.

- Beroz Gazdar (VP, Infra. Dev., Mahindra)
 - 기업과 경영대학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대 뿐만아니라, 공과대와의 교류를 해야 하는데, 공과대학의 연구 및 교육이 기업과 잘 연계되어 있지 않음.

- Frederick Dubee (Senior Advisor, UNGC)
 - 피터 드러커는 ‘모든 사회이슈가 비즈니스의 기회’라고 언급한 바 있음. 기아, 물 접근 등 여러가지 글로벌 이슈들도 비즈니스 기회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비즈니스, 경영 교육의 역할 및 주제가 새롭게 정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경영대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what we are teaching)’ 뿐만아니라 ‘가르치는 학생들이 누구냐(who we are teaching)’가 더욱 중요하다고 봄. CSR에 대한 인식, 태도가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임.

2B CSR 이니셔티브 세션

- Daguny Buehler(Special Secretary,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 ISO 26000과 유엔글로벌콤팩트 연계의 가이드라인 발간 내용을 설명, 2010년 6월 발표 예정

- Brett Rierson (WFP)
 - 기업이 대외 사회적 공헌을 기업 가치로 전환한 모범사례를 설명하며, LG전자의 대외공헌전략을 예시, 설명함



- Veronica Nyhan Jones (IFC)
 - World Bank 산하 IFC의 기업의 지역 개발 공헌 기여 지침서 (Strategic Commitment Investment)를 설명.
 - 지속가능투자의 금융가치 향상 모델 등 설명.
- Joe Phelan (IBLF)
 - IBLF의 Business Call to Action(개발투자, 혁신적 사업 추진 권장)에 대해 소개.

3A 환경 세션

- Sundeep Kumar (Director Corp. Affairs and Comm., SabMiller India & Mr. S.B. Prasad, Head, E&OH, Tata Steel Limited)
 - 현재 세계는 물, 공기 등을 포함한 환경 및 기후변화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그러나 이것은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나아가게 함.
 - 재활용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탄소 배출을 줄이고, 물을 보존하는 기술적 접근 또한 계속 필요함. 이러한 환경적 노력을 투명한 시스템으로 만들고, 무엇보다 보고서 제출을 통해 측정하고 알려야 함.
- Marinus Sikkel (Chief, IED, Trade and Investment Div., UNESCAP, Bangkok & Mr. Rakesh Bhrargava, Shree Cement)
 - 인도의 호텔 방안에 에너지와 물 사용에 있어 환경보호를 위해 절약하자는 내용의 글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이러한 작은 노력과 행동이 매우 중요함. 환경 문제는 무엇보다 개인, 기업, 나라, 국제사회가 함께 촉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더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쉽지는



않지만 보고서나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받으며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만들어야 함. 특히 중소기업과 공급망에 대한 영향력 있는 접근이 필요함.

3B Corporate Governance 세션

- Giovanni Gallo (Sr. Anti-Corruption & Crime Prevention Expert, UNODC)
 - UNGC가 처음 탄생되었을 때, 인권, 노동, 환경에 대한 원칙 9개만 있었음. 이들 9개 원칙의 이행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고, 결국 반부패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게 되었음.
 - 많은 UNGC 회원사들이 COP를 제출하지만, COP 보고서에서 반부패 원칙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음. 많은 기업들이 내부자 고발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 및 이익을 마련한 경우는 적음.

- Ragavan Dhandapany (CEO, Siemens Ltd., Health Care Services)
 - Corporate Governance가 기업의 이사회, 경영진에만 적용되는 이슈가 아니라 수평, 수직적으로 기업의 모든 기능에 걸쳐 중요한 사항임.
 - 지멘스의 모든 매니저들이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음. 모든 직원들이 투명성의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

- 주철기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사회책임의식이 강조되고 있음
 - 동아시아 기업들의 구조조정, 개혁 노력성과 불구, 이에 안주해서



는 안될 것임

- 정부,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연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관련 국제기준에 대해 교육시키기 위해 노력 계속 필요.
-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갖고 있으나, 반부패 관련 포럼 등에서 보면, 서구 기업 대비, 아직 반부패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언하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M. Damodaran (Former Chairman, SEBI)

- 엔론의 경우, 매우 우수한 윤리강령을 갖고 있었으나, 회계 부정 사건으로 파산한 바 있음. 윤리강령이 있는 것만으로 기업의 Corporate Governance의 모든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다고 봄.

- Pritam Singh (Professor,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

- 기업의 문화가 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고 봄.

VI. 결론

1. UNGC/CSR 가치에 대한 인도 CEO 및 산업계의 전반적인 관심 수준이 높은 편임을 확인함.
2. 2009년에야 공정거래법을 도입키로 결정한 면에서는 한국의 경제 제도 수준이 앞선 편이나, 최근 Corporate Governance Voluntary Guideline을 발간한 점 등 인도 지도층의 CSR에 대한 관심은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됨.
3. 인도 산업의 많은 부분이 민영화 되고, 우수한 인도의 인력의 해외 진출 가속화 등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인도내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임.
4. 국내에서의 UNGC/CSR 가치에 대한 정부, 기업 경영층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함.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5. 아·태지역 차원의 UNGC 가치향상 노력에 참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첨부: 회의 관련 프로그램

끝